



● 싱가포르 센토사 아파트 공사 수주



우리 회사는 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시미즈(Shimizu)와 가지마(Kajima), 프랑스의 드라가지(Dragages), 싱가포르의 워협(Who Hup) 등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을 물리치고 미화 8천134만 달러 규

모의 센토사 아파트(Sentosa Condominium)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디자인 & 빌드(Design & Build) 방식으로 수주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휴양지로 중점 개발중인 센토사 섬 해안 고급 주거단지단지 지상 11~15층, 5개동 264가구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규모는 작지만 난방시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가 6백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인 것이 특징. 이는 우리 회사가 2004년 준공해 싱가포르 건설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창이 아파트' 보다도 2.5배나 비싼 금액이다.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CDL(City Developments Ltd.)사는 세계 12개국에서 89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국내에서도 힐튼 호텔과 명동 센트럴 빌딩, 서울 시티 타워 등을 매입한 바 있는 싱가포르 최대의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건설대상을 수상한 창이 아파트(Changi Condominium)와 가구당 분양가가 60억원에 달하는 피어스 빌라(Peirce Villas), 탕린 파크 아파트(Tanglin Park Condominium), 카사르시타 아파트(Casa

Rosita Condominium) 등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CDL사와 인연을 맺어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는 스위스 스태포드 호텔(73층)을 포함한 싱가포르의 래플즈 시티(Raffles City Complex)와 두바이 3대 호텔 중 2개인 305m 높이의 에미리트 호텔(Emirates Hotel)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Grand Hyatt Hotel)을 시공하는 등 총 1만 객실이 넘는 호텔 시공실적을 보유해 호텔 시공부문 세계 2위에 까지 오른 바 있다.

● 옹호만 매립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

우리 회사가 3월 31일 부산광역시 관계자, 정원중 부산은행 부행장, 김성원 쌍용건설 상무, 양철규 옹호만 개발 유한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00억원 규모의 옹호만 매립 민간투자사업 금융 약정식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옹호동 일대 4만 1천 여평(134,398㎡)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상업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민간투자자로는 쌍용건설, 삼미건설, (주)반도 등 3개사가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다.

한편 부산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한 사업비는 향후 부산광역시가 매립 용지 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하게 된다.

●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 민자사업 수주

우리 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3월 7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는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를 1,298억원(우리지분 47.7%, 511억원)에 수주했다. 민자사업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인천시 팔미도 북서 연안에 총 1,647만㎡(길이 4,290m, 폭 831m, 굴착심도 4.7m) 규모의 항로를 준설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인천북항 및 남항

을 통한 출입항 물류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재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항로 준설을 통해 채취한 준설토를 현장에 전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근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인천북항 일반부두 현장 등에 매립재 및 골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기 준공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터키 수주



우리 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3월 7일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 2권역)를 792억원(우리 지분 50%, 396억원)에 터키로 수주했다. 우리 회사와 신동아건설, 흥한건설, 한반도건설, 금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한 쌍용 컨소시엄은 설계 심의에서 93.48점을 획득, 금호건설(89.87점)과 SK건설(89.53점) 등 경쟁사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는 올해 토목본부가 참가한 터키·대안공사 중 첫 번째 프로젝트로 토목과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분야 등 모두 포함된 복합공종 환경사업으로 건축본부와 토목본부 전 직원이 합심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기존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던 환경 및 터키·대안시장에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수주 전망도 매

우 밝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공사는 남강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남강댐 수계 수질 보존을 위해 경남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 사천시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신안·단성하수처리장(1,500㎡/1일)과 시천하수처리장(600㎡/1일) 등 하수처리장 2개소 신설, 하수관거(L=135.5km) 신설(30개소) 및 개량개선(7개소), 펌프장 신설(100개소), 산청하수처리장의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포함한다.

선회와류식 SBR 공법과 SNR공법, 우리 회사가 개발해 환경기술로 지정 받은 KSMBR 공법 등이 적용되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신안·단성하수처리장은 한방 약초 공원을, 시천하수처리장에는 꽃감 공동작업장이 조성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 서울특별시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우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4월 13일 조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청사 증축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우리 회사는 삼성물산, SK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1,422억원(우리 지분 20%, 284억원)을 투찰해 낙승을 거뒀다.



이번 공사는 기존의 본관동은 그대로 두고, 기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다는 계획 하에 건축연면적 88,050㎡ 규모의 공공업무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건설하고 부대 토목, 조경공사, 기계설기,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 청사의 뒤뜰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로 지어지는 새 청사는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통 도자기 모양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지상 3층에는 대회의장 들어서고, 21층은 대규모 연회가 가능한 스카이 라운지로 운영된다. 새 청사가 완공되면 서소문 별관 등 4곳에 분산된 사무실이 통합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5월 착공해 2009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 국가 보훈처 장관 표창 수상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보훈복지지원시설 현장(소장·최응식 차장)이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을 시공한 이 현장은 13개월의 짧은 공기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우수한 품질로 준공해낸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 보훈교육연구원은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의 연수

교육, 보훈관련 공무원 교육, 전역예정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초·중·고·대학생 대상 보훈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분야 우수업체 선정

우리 회사가 3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의선 승무원 숙소 현장(소장·이재필 차장)을 우수한 품질로 완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공분야 우수업체'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이 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년도에 준공된 현장들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경의선 승무원 숙소 현장은 2002년 12월 착공해서 2005년 4월 준공하기까지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의 원칙을 성실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회사는 우수한 시공능력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 받게 됐으며, 향후 2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PQ 신인도 1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됐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769㎡ 규모의 이 현장은 승무원 34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사무실, 기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 회사 조현 토목기술부장이 3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층에서 개최된 '제 9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 부장은 그 동안 사내에서는 무진동 파쇄공법 등 신기술 개발 및 적용에 앞장서고, 사외에서는 건설관련 학회의 편집 및 전문위원으로서 왕성한 학회활동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국내 토목 기술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ITA (국제터널협회) WTA(세계터널학회) 2006' 행사의 국내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번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 한편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대한토목학회 박창호 회장과 국책기관, 연구소, 대학의 토목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토목인 28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수주

우리 회사는 5월 2일 조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를 1,688억원(우리지분 20%, 338억원)에 수주했다.

우리 회사와 대우건설, SK건설, 한백중건, 신화토건, 광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한 이번 컨소시엄은 설계 심의에서 92.11점을 획득, 경쟁사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 공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서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까지 총연장 11.3km, 폭 20m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교량 10개소(L=3,807m) 및 교차로 4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유공 감사패 수상



우리 회사가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 발전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5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김승준 국제투자본부장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수상한 업체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196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수주 누계가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총 10개 건설사가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UAE 등 17개국에서 119건의 공사, 총 52억 4천달러(한화 5조 상당)의 수주를 기록함으로써 업계 8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 건설 수주가 대부분 플랜트에 치우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회사는 최고급 건축과 토목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춘 독보적인 업체로서의 위상을 쌓아오고 있다.

올해 들어 인도 노스-사우스 코리더(North-South Corridor) 고속도로 공사 4개 공구 및 싱가포르 고급 주거 단지 오션프론트 콘도(Oceanfront Condominium)를 수주하는 등 해외 건설 명가로서의 자부심을 재건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발 빠른 홍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